“공심으로 함께하는 도량, 화엄사의 미래 100년”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 비전
문화로 여는 포교, ‘공심’으로 확장
보제루 · 사찰정원 유산 활용 모델
‘생활 명상’ 도입으로 포교 활성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중과 함께 ‘전통의 힘’ 위에 ‘새로운 변화’를 쌓아 ‘미래로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4년의 교구 운영 방향과 포교 전략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8월 20일 범음료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을 주제로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 우봉 스님, 기획국장 우승 스님, 재무국장 법문 스님, 사회국장 연우 스님, 포교국장 덕명 스님, 복지국장 우태 스님, 연수국장 성학 스님, 홍보국장 범정 스님, 교육국장 선타 스님 등 국장단이 배석했다.

우석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화엄사는 연기조사 창건 이래 1500년을 이어온 도량으로, 정화불사 이후 도광·도천 두 큰스님의 발원과 회향, 그리고 후학들의 화합이 오늘의 가풍을 이루었다”며 “이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의 언어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날 우석 스님은 △교구 원융화합 △본·말사 상생 △문화유산의 가치 확장 △사찰정원 체계화 △불교편람 제작 △아웃도어 템플스테이(가칭) △지역과의 소통 등 7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수행 도량의 본래 면목을 지키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치유의 기능을 덧입혀 ‘사부대중 모두의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로 다가서는 포교

‘화야몽(華夜夢)’ 등 문화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 우석 스님은 “교리 전달만으로는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문화적 접근이 위안과 평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색채를 30%, 문화의 색채를 70%로 배합해 종교적 공간 안에서 문화 활동을 펼치면, 불교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마음의 평정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젊은·힙한 불교’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을 들어 답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1600년은 시대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조선의 숭유억불로 산중에 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공간성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 대중과 함께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고, 지금도 그렇게 변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화엄사가 100년, 200년 후에도 살아 있을 기준은 시주 규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평안을 얻고 ‘여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음, 저는 그것을 ‘공심(公心)’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는 그 공심을 쌓는 일을 한다”고 밝혔다.

전임 주지 덕문 스님 시기부터 정착된 사계절 프로그램에 대해 “정초 기도와 홍매화 축제, 초파일·연등 장엄, 여름 ‘모기장 영화음악회’, 가을 화엄문화제까지 이어가되, 겨울 콘텐츠를 신규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문화유산의 날’ 선포를 통해 문화유산 재능보유자의 시연·전시와 1년 회향식을 마련, ‘배우고 체험하는 유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활용 새 모델 제시

우석 스님은 전남유형문화유산 보제루의 활용 방향도 설명했다. “과거엔 ‘활용=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활용을 통한 보전’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다만 액자 하나 걸기 위해 못을 박을 때도 법적 제약이 많다. 문화재위원·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갤러리·문화거점으로 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에는 궁중정원은 있어도 ‘사찰정원’ 개념은 없다”며 “건축·조경·휴식이 어우러진 사찰형 전통정원 모델을 정립해 국민 누구나 쉬어 가는 힐링 공간으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심 증장 방안에 대해선 전통 의례와 현대적 수행의 일상화라는 두 축을 제시했다. 스님은 “전통의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초 사천왕불공·24시간 기도, 초파일 연등 장엄, 백중, 동지 팥죽 나눔 등은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현대인에게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수행함(기도함)’ 같은 휴대형 수행 키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준비 중인 아웃도어 템플스테이의 방향도 귀띔했다. 스님은 “기존 템플스테이의 고정된 공간·형식을 벗어나, 자연 그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 프로그램”이라며 “구체적 구성은 보완해 공개하되,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을 잇는 수행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석 스님은 “화엄사가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간, 문화가 숨쉬는 도량으로 존재하도록 ‘공심’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울산시 건축상 대상 수상


‘2025 울산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사진 제공=이한울

울산시 8월 14일 수상작 발표
“유기적 연결 통해 조화” 평가
‘문화도시 울산 거점’ 자리매김

울산 백양사(주지 지선 스님)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2025년 울산시 건축상 대상작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8월 14일 시민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주거, 공공, 일반, 새 단장, 신진 등 5개 부문 50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기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7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차지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는 경사지를 적극 활용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세련된 외관과 실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로 공간의 흐름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인근 백양사까지 조망으로 끌어들여 자연·문화·역사가 어우러진 공간미를 완성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공성과 개방성이 뛰어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문화도시 울산의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종하이노베이션 센터(원안 건축사사무소) △삼산해솔청소년센터(제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주전초등학교(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케이지주차빌딩(디퓨전 건축사사무소) △미지의(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겹겹집(온 건축사사무소)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수상 건축물에 동판을 부착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에서 수상작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곡사 본·말사,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

8월 29일 대광보전 금강계단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8월 20일 대광보전 앞 금강계단에서 본·말사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사부대중 12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석은 조계종 원로의원 지공 철웅 대종사를 증명 법사로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이 전계대화상, 혜경 스님(마곡사 부주지)이 갈마아사리, 장곡 스님(보석사 주지)이 교수아사리를 맡았다. 자암 스님(봉서사 주지), 천산 스님(갑사 주지), 태진 스님(태고사 주지), 정덕 스님(무량사 주지),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종봉 스님(관촉사 주지), 법두 스님(성불사 주지)이 7증사로 올랐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출·재가가 함께 계율을 수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는 법석으로, 안병권 6교구 신도회장과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수지하며 일상에서 계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원경 스님은 “계를 받는 일은 번뇌를 씻어내는 맑은 샘과 같다”며 “오늘의 인연이 모든 불자에게 마음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 선출

8월 14일 선관위 회의서… “교육 내실화 추진”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완주 봉서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전북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연수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취임식은 오는 10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연수 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원로대덕 스님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교육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구 원로자문단 구성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스님은 “법회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각 사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종무행정 서비스 도입 △전북영산작법보존회 활성화 △영산재 상설공연장 설립 검토 등도 추진한다.



연수 스님은 “각 사찰의 발전이 곧 전북교구의 발전”이라며 “원로 스님과 대중의 뜻을 받들어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전북교구가 전통과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수 스님은 법안 스님(논산 안심정사)을 은사로 출가해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대전 백화사 주지, 지방종회의원,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 업무국장, 중앙종회 사무국장, 중앙종회의원 총무분과 간사, 종책자문위원회사무처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원 스님, 광복절에 장병 2300명 수계

8월 15일 호국연무사 연무관서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이 광복절인 8월 1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연무관에서 군 장병 2300명에게 수계했다.〈사진〉

이날 수계대법회에는 백련사 대중스님과 가평사암연합회 총무 법광 스님(성불사 주지),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 군승 법사들, 백련사와 성불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승원 스님은 법어에서 “계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삶의 바탕”이라고 강조하며 사다리·등불·배에 비유해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마음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때 국가와 사회에 당당히 이바지할 수 있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다.

한편, 승원 스님은 이날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총림, 도연당 법흥 대종사 49재 엄수

8월 18일 사자루서 봉행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8월 18일 경내 사자루에서 도연당 법흥(法興) 대종사의 49재를 엄수했다.〈사진〉

49재에는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해 수좌 범종 스님, 유나 영선 스님, 회주 영진 스님, 주지 무자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해 평생 참회와 정진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뜻을 기렸다.

문도대표 지원 스님은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은사 스님 49재를 추모해 주신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도들은 스님이 일생을 견지해 오신 수행 정신을 이어받아, 스님께서 그토록 참회와 발원을 하셨던 내용을 함께 실천하겠다”고 인사했다.

주지 무자 스님은 “큰스님의 49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본·말사,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6일 대적광전 앞 법단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8월 16일 금산사 대적광전 앞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을사년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는 지난 7월 5일 입재해 매 7일마다 49일간 봉행됐다.

이날 생전예수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으로 봉행됐으며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화평 스님 등 본말사 대중 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북불교회관 회주 평상 스님은 회향 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닦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으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재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바른 불자로 서원하며 삶을 정화하는 수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도들이 더 큰 지혜와 자비심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맞는 수행을 하면 삶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서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산 해원사, 다문화 청소년 여름캠프

8월 15~17일, 경내 · 해운대서



베트남 사원 양산 해원사(주지 쩐 프엉 스님)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내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제7회 다문화가정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4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무더운 여름밤을 불교문화와 물놀이로 시원하게 밝혔다.

주지 쩐 프엉 스님은 “이번 캠프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작은 부처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